

# 海外과학관주제국 13國國으로 확대

## 美·日엔 科學官증과 방침

정부는 해외첨단과학기술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입수하고 과학기술분야의 해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과학관 주제국수를 현재 6개국에서 13개국으로 늘리고 미국과 일본 지역에는 과학관(3~4급)을 증파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처는 현재 미국과 일본 EC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등 6개국에 나가있는 과학관만으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느끼는데다 全方位과학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해외과학관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10월6일 밝혔다.

해외과학관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중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헝가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유엔본부등 7곳이며 미국 워싱턴과 일본 도쿄에는 과학관 1명씩을 추가 파견할 방침이다.

### 「우리별1호」有功者

#### 30명에 훈·포장 표창

金鎮炫과기처장관은 10월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적위성인 「우리별 1호」의 제작및 운영에 공이 큰 한국과학기술원 崔順達박사(인공위성연구센터 소장)등 연구원 30명에게 훈·

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포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동백장=成壇根 劉平一(KAIST교수) △목련장=尹明重(〃) 朴贊旺(KAIST연구원) △석류장=李興揆 朴圭皓(KAIST교수) △국민포장=崔圭弘(연세대교수) 崔京日 朴聖東(KAIST연구원) △대통령표창=金聖憲 張玄錫 金亨信 朴剛民 劉相根 閔勝鉉 李鉉宇 南承日 李鍾寅 金一泰 李柱鎭(KAIST연구원) 陸在林(한국전파연구소기좌) △국무총리표창=鄭容吉(KAIST연구원) 朴景允(시스템공학연구

소연구원) 崔容源(KAIST 행정원) 李東雨 金奉豆 金光植 深한복 鄭盛仁(KAIST연구원 보)

### 研究지원棟 준공 기념식

#### 航空우주연, 大德단지서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지원동이 준공돼 10월20일 오후 3시 30분 大德연구단지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연구지원동은 5만7천평의 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건평 3천6백평규모로 항공우주분야의 연구활동을 하는데 사용되고 앞으로 관련 기술개발과 시험을 위한 종합 시험동, 인공위성 조립시험동 등을 잇따라 건설할 계획이다.

## 科技증진협력각서 체결

### 科學財團—러시아과학원간

한국과학재단이 최근 러시아과학원과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증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각서를 체결했다.

과학재단의 權原基사무총장과 러시아과학원 유리 오시프 프원장이 체결한 이 각서에 따라 양기관은 앞으로 △과학자 상호교류 △공동연구 △공동 심포지엄 및 세미나개최등의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과학재단은 이와함께 러시아과학원과 빠른 시일내에 과

학기술협력을 위한 전문기구로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다양한 특정 사업들을 공동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과학재단은 이에앞서 독일연구협회(DFG)와 연차회의를 갖고 내년 大田엑스포기념 국제심포지엄및 촉매기술 환경고분자화학 해양생물 신교통신시스템등 6개분야에 걸쳐 공동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이다.

## 「大德연구단지 관리법」 추진

### 科技處, 管理委설치... 入住심사권 부여

우리나라과학기술연구의 중심점인 大德연구단지가 무분별하게 개발·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연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大德연구단지관리법」이 제정된다.

科技處는 현재 대덕연구단지의 조성이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대덕연구단지조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내 관계규정의 시한이 오는 9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94년부터 연구단지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해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科技處는 올해말까지 法案을 마련하고 建設部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열릴 國會에 상정키로 했다.

科技處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통해 민간에 분양된 연구용 부지가 사업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단지내 향락 유흥업소나 환경유해업소의 입주 및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연구단지관리의 주체로 「연구단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입주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능을 부여하고 장기적인 연구단지관리 기본계획수

립의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단지내 입주한 연구기관의 육성및 지원을 위해 ▲ 창업보육센터 설치 ▲ 출연연구기관 보유기자재의 공동활용 ▲ 기관간 기술·정보·인력 교류 촉진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科技處는 93년 EXPO 종료후 각종 전시물 및 시설을 國立중상과학관과 연계하여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후관리체제도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포함시켜 일원화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大德연구단지는 지난 73년부터 총8백34만평규모로 조성 시작돼 현재 부지·도로·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98%의 진도를 보여 오는 11월 말 단지조성완료를 앞두고 있다. 또 총 65개의 입주대상 연구기관및 교육기관 중 현재 31개가 입주완료하고, 나머지는 건설중 내지 설계단계에 있어 오는 93년말께 거의 입주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大學연구센터 評價제 실시

科技處, 계획안 마련

과학기술처는 최근 대학우수연구센터들에 대한 계속 지

원여부를 가리는 중간평가를 앞으로 3년마다 실시키로 하고 올해 첫 대상인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인공위성연구센터등 13개 센터에 대한 평가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수연구센터 평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 센터자체평가 △ 센터별 전문가7인에 의한 서면평가 △분과별 전문가7인에 의한 현장평가 △분과별 전문가에 의한 센터참여자와의 세미나 평가 △종합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등 5단계로 진행된다.

평가기준은 연구실적및 성과(60%) 센터의 조직운영(15%) 연구책임자의 사업추진능력과 연구기획관리(10%) 총괄평가(15%)등이다.

### 原子力문화사업기금

5년간 5백억 확보키로

원자력계는 원자력에 대한 對국민이해사업을 위해 5백억 원규모의 원자력문화사업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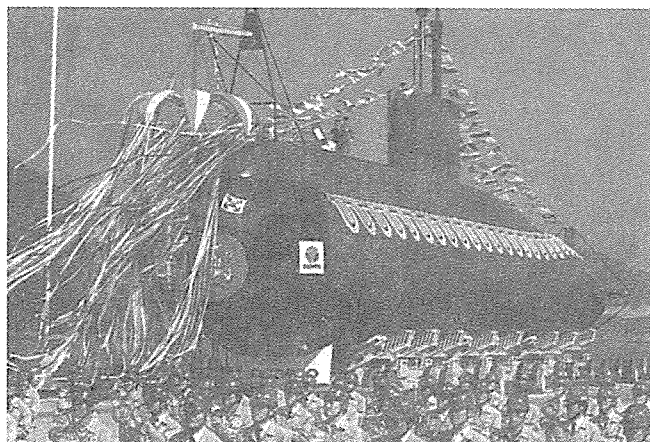
과기처,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이 기금은 내년부터 연 1백억원씩 5년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중에서 1백억~1백5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국전력 및 원자력 관련기업들이 부담토록 했다.

이 기금의 과실금은 지난 상반기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金善禎)의 각종 사업비로 쓰인다.

# 國産잠수함 첫 進水

## 千2百톤급 「李阡艦」...千4百억 투입



◀ 우리기술로 만든 韓國 최초의 잠수함 「李阡艦」이 10월 12일 경남 창원포대우 육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海軍은 10월 12일 오전 慶南 巨濟의 大宇조선소에서 우리 기술진에 의해 처음 건조된 잠수함 「李阡艦」의 진수식을 가졌다.

盧泰愚대통령내외를 비롯 金鐵宇해군참모총장 金宇中大宇 그룹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진수식에서 대통령 부인 金玉淑여사가 해군함정의 전통적 진수의식에 따라 진수 도끼로 테이프를 끊었다.

「李阡艦」은 大宇造船이 지난 87년 정부와 계약을 맺고 獨逸 HDW조선소로부터 설계와 기술을 제공받아 지난 89년부터 건조에 착수한 T509급 디젤엔진추진 잠수함으로 일정기간의 시운전을 거친뒤 오는 94년 해군에 정식으로 인도된다.

총 1천 4백억원의 건조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 잠

수함은 1천 2백 t급으로 어뢰와 기뢰 등을 장착, 30명이상이 타고 약 2개월간 단독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잠수함은 또 최대속도면에서는 현재 北韓이 보유하고 있는 25척의 위스키급 및 로미오급잠수함보다 2배 이상 빨라 작전수행능력과 성능이 월등한 것으로 평가된다.

「李阡艦」은 蒙古의 제 5차 高麗침입당시(1256년 高宗 4년) 전선 20여척과 수군 2백여 명을 이끌고 忠南 아산근해로 출동, 온양에 주둔중인 蒙古軍을 물리친 李阡장군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 기초과학지원센터 서울分所

#### 高大캠퍼스서 着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

학지원센터 서울분소 신축기공식이 10월 13일 하오 고려대 자연계 캠퍼스에서 金鎮炫과학기술처장관 金相万 高麗大 재단이사장, 金熙執 高麗大총장, 金宇甲 서울분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2천평 규모 건물로 93년 6월말 준공 예정인 기초과학지원센터 서울분소는 앞으로 7백만달러 상당의 최신 고가정밀과학기기를 갖추고 수도연대학 연구자들의 기초과학 연구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 정밀누수탐지기 개발

#### 資源研 鄭承桓박사팀

방조제및 제방의 漏水를 정확하게 탐지할수 있는 우수한 누수탐사기술및 기기가 한국 자원연구소에서 개발됐다.

이 연구소 자원탐사연구부의 鄭承桓박사팀은 서로 다른 電氣傳導度를 이용하는 전기비저항탐사법과 자연전위탐사법을 응용, 탐사의 정확도가 99.98%정도인 특수탐사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기비저항탐사법은 전류가 전기를 잘 통하는 부분으로 집중되어 흐르고 전기비저항이 높은 쪽은 피해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자연전위탐사법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하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지하수의 유통경로를 탐지하는 방법이다.

## 尖端실험장비 大學과 共同사용

### 2천년까지 1억여弗어치 확보

기초과학지원센터는 오는 2천년까지 2백86종 1억1천5백만달러어치의 첨단 고가장비를 확보, 연구실험시설이 부족한 대학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기초과학지원센터는 大德본소와 高麗大, 釜山大, 慶北大, 全南大에 설치될 4개 분소로 전국적인 대학연구지원망을 구축하고 대학의 재정능력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高價의 첨단 연구실험장비를 지역별로 풀(POOL)화해 공동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기초과학지원센터 大德 본소는 연내에 5천5백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 美國MIT대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2천만달러 상당의 플라즈마연구시설(6백메가급)을 비롯, 총6천5백만달러어치의 첨단연구실험장비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집중 연구가 필요한 기초과학분야의 공동연구사업과 실험결과의 분석능력 취약에서 오는 대학연구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釜山, 大邱, 光州등 4개지역에 설치될 지역분소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등 분야별로 지원조직을 구성,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실험기기를 운영함으

로써 원활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강원권지역 대학을 지원하게 될 高麗大 서울분소는 오는 2000년까지 2천만달러어치의 각종 실험장비를 갖추 계획이며 釜山大부산분소 慶北大대구분소 全南大광주분소는 각각 1천만달러어치의 연구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지원센터는 대학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원 연구원제도를 도입, 탁월한 아이디어와 능력을 보유한 우수 외래연구원이 당해 연구가 완료되는 기간까지 내방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오존·탄산가스 관측소

#### 93~94년 설립추진

우리나라에도 「오존관측소」와 탄산가스 관측소가 93,94년에 각각 설립된다.

기상청은 10월19일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 파괴실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수집등을 위해 오는 94년중 「오존관측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와 프레온가스등 溫室氣體의 측정분석을 위해 「務安기상대」를 신설,

3~4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상자료 직접교환을 위한 서울~평양간 전용통신망 설치와 전문가 교류, 기후·예보·지진등에 관한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 우리별이 찍은 韓半島사진

#### 발사59일째 촬영 송신

우리별 1호가 마침내 한반도를 선명하게 찍은 사진을 지상에 보내왔다.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소장 崔順達)는 발사 59일째를 맞은 우리별 1호가 지난 6일 오전 9시52분에 지상 1천3백km의 북위36.1도 동경 1백27.1도 지점인 大田상공에서 촬영한 한반도사진을 10월8일 공개했다.

군데군데 구름이 덮이긴 했지만 이 사진은 한반도의 해안선과 만주 중국 일본의 일부지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서울 대전 대구등 대도시와 안동댐 수풍댐은 검은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강화도 고흥반도와 거제도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진은 우리별 1호에 실린 2대의 카메라중 초점거리 4.8mm의 광각카메라가 찍은 영상자료를 지상국에서 한반도부분만 떼내어 컴퓨터로 화상처리한 것이다.

## 호르몬진단법 國內 첫개발

KIST도핑컨트롤센터, 혈액·소변농도로 질병진단

사람의 혈액이나 소변에 함유된 호르몬의 농도를 정밀측정해 각종 질병을 손쉽게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 鄭鳳哲(36)·劉榮淑(37)박사팀이 3년간의 연구끝에 밝혀낸 이 호르몬진단법은 환자의 소변이나 혈액 속에 극미량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사과정별 생성치를 측정, 이를 정상인의 평균치와 비교해 각종 질병의 진료에 적용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鄭박사팀은 먼저 스테로이드 합성과정에서 만들어지는 30여종의 호르몬에 대한 건강한 사람의 함유치를 성별·연령별로 측정한 뒤 한국인의 기준치를 만들었다. 그 결과 체질이 다른 외국인의 기준치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냈다.

특히 같은 한국인이라도 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마련인 호르몬농도의 절대치 평가로 말미암아 빚어질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단계별 생성비까지도 마련해 진료의 정확성도 한결 높였다.

KIST측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및 내과, 가톨릭병원 내과 등 국내의료진과 공동으

로 鄭박사팀이 개발한 이 방법을 실제로 응용해본 결과 신뢰도 및 진단효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는 내분비계에 총괄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방법을 진료에 이용할 경우 스테로이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전립선 질환이나 부신질환, 유방암등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진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次世代 기억소자 개발

半導體 1기가D램 집적

서울대 전자공학과 金元燦 교수는 기존 반도체 개념과는 전혀 달리 트랜지스터를 2개로 한 적층구조의 차세대반도체 기억소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소자는 트랜지스터1개와 축전지 1개로 구성된 기존 반도체의 셀(정보저장칸)과는 달리 여기에 트랜지스터 1개를 추가시켜 이를 신호증폭기로 활용, 정보량을 증폭시킴으로써 기존 반도체소자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집적케 한 차세대 소자다.

金교수는 현대전자반도체연구소에 의뢰, 실험시제품을

만들어 실험해본 결과 이 소자는 정보량의 고집적화는 물론 기존 디지털방식의 반도체 칩이 처리하는 0과 1등의 수치에다 신호증폭작용으로 3분의 1등 아날로그신호까지 처리가 가능해 이를 통해 앞으로 각종 퍼지칩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金교수는 이 기초기술을 지난해 미국 일본 독일등 주요 반도체생산국에 특허출원했으며 지난달 美전기및 전자공학회(IEEE)에 관련 논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熱효율 95% 보일러

에너지硏 개발 성공

한국에너지연구소 朴寅錫박사팀과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 方孝善박사팀은 국내 최초로 열효율95% 고효율가스보일러를 개발했다.

개발된 고효율 가스보일러는 배기가스 폐열을 최대한 활동하는등 현재 가스연소에 쓰이는 유류용 보일러보다 효율이 7%나 향상된 것으로 가스연소에 쓰인 기존 보일러(유류보일러)와 대체시 연간 LNG 5백만t, 금액으로 약 1천억원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와함께 연구소는 열설계, 통풍설계, 강조설계등이 포함돼 있고 PC로 운용이 가능한 설계프로그램을 개발해 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른 등록을 마쳤다.

노벨賞 수상자선정 발표

物理 佛 샤르팍 · 化學 美 마커스박사

醫學賞 피셔-크랩스 교수

프랑스의 물리학자 조르주 샤르팍교수(68)가 소립자 실험자료전산화장치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스웨덴 과학아카데미가 10월14일 발표했다.

또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美캘리포니아 공과대학(칼텍) 화학과의 루돌프 마커스(69) 교수가 선정됐다. 캐나다 태생인 마커스교수는 『화학구조 내의 전자이동반응이론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다고 과학아카데미측은 밝혔다.

파리의 고등물리화학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샤르팍교수는 85년 프랑스 과학아카데미 회원자격을 획득했으며 89년에는 유럽물리학회가 주는 고에너지입자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1923년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태어난 마커스교수는 고향의 맥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뒤 64년 美 일리노이대 교수를 거쳐 78년부터 칼텍에서 재직해 왔다.

한편 샤르팍과 마커스교수는 노벨상 상금으로 각각 6백 60만프랑(1백20만달러)를 받게된다.

또한 금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은 세포단백질에 관한 연구-발견에 공이 큰 美國 시애틀市소재 워싱턴대학 연구원 에드윈 크랩스(74)와 에드먼드 피셔(72)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의 노벨위원회는 12일 『크랩스와 中國대생의 피셔가 「생물학적機轉으로서의 可逆단백질 燐酸化」에 관한 발견 등으로 92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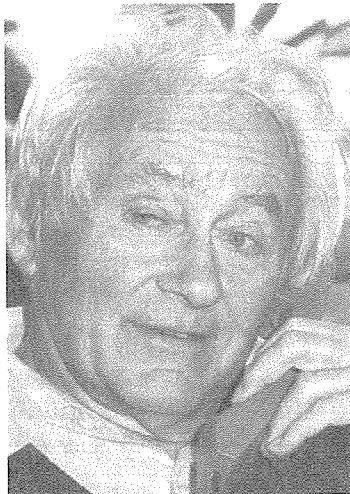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2명의 공동수상자에게는 6백50만프랑(美貨 1백20만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금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단백질 인산화가 단계적 방법을 통해 모든 세포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機轉을 구성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物理學賞 소립자검출기개발 선구자

샤르팍교수는 소립자연구의



▲ 조르주 샤르팍교수

필수장비인 입자검출기개발에 끼친 선구자적인 공로로 물리

학상수상자로 선정됐다. 파리 물리화학고등학교교수이기도 한 샤르팍교수는 지난 1968년에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CERN)에서 소립자실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수집하는 측정장치를 고안했다. 전자공학을 이용한 이 장치는 수집한 데이터를 직접 컴퓨터에 연결해줌으로써 전하를 띤 입자를 사진으로 찍어 검출하는 기존방법보다 무려 1천배나 빨리 데이터를 수집한다. 지난 20년동안 물리학자들은 그의 입자검출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입자검출기를 개발해왔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한 학자들이 지난 76

## 과학기술계뉴스

년과 84년에 이미 노벨물리학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이용되는 거의 모든 입자검출기가 샤르팍교수의 개발품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의 입자검출기는 X선탐지등 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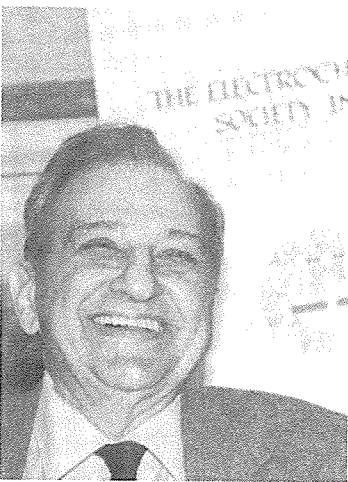
분야에서도 이용된다.

샤르팍은 1924년 폴란드에서 태어났으며 55년 파리의 콜레주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59년부터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에서 연구해 왔다.

입증됐다. 그의 이론에 따라 물질의 부식현상, 녹색식물의 光에너지 이용과정등을 밝혀 낼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태양에너지의 발생과정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마커스박사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출생, 그곳의 맥길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51년에는 미국으로 이주, 뉴욕 브루클린 폴리테크닉의 교수가 됐으며, 64년에는 일리노이대학 화학교수로 옮겼다. 캘리포니아공대(칼텍)에서 화학교수직을 맡은 것은 78년부터이다.

### 化學賞 分子間 전자전달반응이론 개척



▲ 루돌프 마커스교수

가장 기본적인 화학반응과정으로 생각, 이를 수학적으로 간단히 설명하는데 성공했다. 그의 이론은 처음에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결국 많은 화학현상을 해명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이

### 醫學賞 臟器이식거부반응 방지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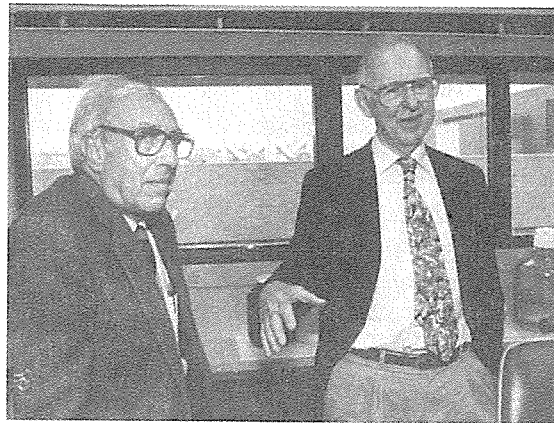
올해 노벨의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미국의 에드먼드 피셔와 에드윈 크랩스는 「생물학적 조절기능으로서 가역단백질의 인산화」에 대한 연구로

한 최초의 연구자들이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연구는 의사들에게 시클로스포린(장기이식시 거부반응 방지약)이 신장, 간, 췌장 등의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루돌프 마커스(69)박사는 화학체계내에서의 電子전달반응이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마커스박사는 1956년부터 65년 사이에 전자전달반응에 관한 일련의 연구논문들을 발표했다. 이 연구논문들은 화학반응에서 나타나는 각기 다른 반응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으며 결국 화학실험상의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됐다.

마커스박사는 두 분자사이에 나타나는 전자의 전달을



의학적공적을 인정받았다. 노벨위원회는 『그들은 세포내 단백질의 조절하는 첫번째 효소를 추출해 그 성격을 규명

조직이식에서 나타나는 거부반응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를

◀ 1992년도 노벨醫學賞 공동수상자인 에드먼드 피셔(우측)와 에드윈 크랩스박사가 시애틀의 연구소에서 노벨수상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 과학기술계뉴스

받았다. 암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 전이하는가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는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가역단백질은 오늘날 의학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폭넓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이 단백질은 인체 근육활동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사람은 이 연구로써 단백질이 인체 세포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빨리 에너지를 공급해 육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과정을 밝혔다.

가역단백질은 糖原으로 부터 포도당이 다양하게 활성화하는 조절과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장기이식때 거부반응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인체 세포는 단백질에 촉매작용을 하는 특정糖原과, 1947년 노벨의학상 두수상자인 칼과 게르티 코리에 의해 처음 발견된 가인산분해효소를 사용한다. 가인산분해효소가 소량의 효소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것이다.

### 科總·原子力研·三星전관등 우승

#### 科總주최, 제12회 科學기술인테니스大會



전경(원내)은  
하고 있다) 12회 과학기술인테니스대회 개막식  
을  
개  
막  
식  
을  
개  
막  
식  
을  
개  
막  
식  
을

제12회 과학기술인테니스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은 노년부에서 科總팀(김진영·선우양국), 장년부에서 한국原子力연구소팀(홍성락·박성준), 청년부에서 한국原子力연구소팀(신태명·주형국), 특별B부에서 삼성전관팀(고수남·김호삼)이 각각 차지했다.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가 10월21일 과학기술인들의 친선과 체력단련은 물론 회원단체간의 유기적인 연합을 도모하고자 올림픽테니스코트에서 마련한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은 대한전기학회 노년부팀(이창근·김교성), 한국토양비료학회 장년부팀(정인명·조병옥) 한국토양비료학회 청년부팀(현근수·김대언), 삼성전관팀(채희

병·임인식 : 특별B부)에게 돌아갔다.

3위는 노년부에서 科總팀(민관식·노재식)·대한토목학회팀(윤해봉·이한민), 장년부에서 한국인삼연초연구소팀(오은환·류용수)·한국엔지니어클럽팀(김정철·박상호), 청년부에서 KIST팀(이봉연·최봉진)·한국원자력연구소팀(이영철·김기식), 특별B부에서 두산의 이덕재·박군호씨팀과 서재민·조석철씨팀이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도 파기처 임창식씨에게 감투상이, 과총 노재식씨에게 미기상, 대한토목학회 이경진씨에게는 매너상, 한국과학재단 홍순식씨에게 노력상이 주어졌다.

지난 78년 시작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만60세이상의 노년부 6개팀을 비롯 50세이상의 장년부 11개팀, 만50세미만의 청년부 33개팀과 과총 찬조회원으로 이루어진 특별부 6개팀등 56개팀이 참가했다.



## 특수燒却爐 개발성공

### 原子力研, 可燃性 폐기물 高淸淨처리

원자력발전소, 일반산업체, 병원등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중 40%이상을 차지하는 가연성폐기물을 감량시키는 특수소각처리로가 개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金俊炳 徐容七박사팀(방사성폐기물관리부)이 개발한 소각로는 섭씨 7백도이상 예열시킨 후 8백~9백도에서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보조연료없이도 연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싸이크론식 후연소장치에 의해 타지않는 물질을 재연소시켜 환경오염이 없는 무공해 소각이 가능하다.

또 소각후 대기에 방출되는 가스중에 함유된 분진수가 낮아 방사성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 및 산업폐기물에 적용할 경우에도 아주 적은 양의 유해성분 捕集이 용이해 가연성폐기물의 고정정처리 및 처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고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인 휴지 플라스틱 장갑 방호복 덧신 및 신발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부피가 50분의 1에서 1백분의 1로 감소되었고 50kg의 천폐기물을 소각한 결과, 총 8백

50g의 불활성 물질인 소각재만 남았다고 밝혔다.

### 熱효율 95% 보일러 에너지研 개발 성공

산업용 가스터빈설계기술이 국내최초로 개발됐다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밝혔다. 이 연구원의 金光鎬박사팀은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난방에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의 산업용 가스터빈을 설계했다고 발표했다.

가스터빈은 디젤엔진에 비해 공해가 거의 없고 부피가 적으며 면적이 좁아도 설치가 가능한 장점을 가졌으며 디젤엔진에는 없는 난방기능도 가졌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설계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었다. 金박사는 이 가스터빈엔진은 출력1천3백마력에 1천w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은연어 대량양식 성공

#### 海洋研...치악수산등 共同

냉수어종인 은연어의 대량양식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에따라 양식업자들은 지금까지 겨울에는 놀려야했던 가두리양식장을 이용해 소득

을 얻을 수 있어 양식업계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일반 소비자들도 고급어종으로 인식, 구입을 꺼리던 은연어를 비교적 싼가격에 사 맛볼수 있게 됐다.

이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소 생물공학연구실, 치악수산등 6곳의 연구소와 민간업체가 지난84년부터 8년동안 공동연구한 끝에 성공했다.

은연어의 양식성공으로 우리나라는 해마다 3천~5천t씩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3kg짜리 수입은연어1마리에 8만~9만원하는데 비해 국내에서 양식한 은연어는 4만원정도에서 구입할수 있다는 것이다.

### 科學경진대회 개최

#### 科振, 474명 참가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 10월11일 여의도중학교와 한강고수부지에서 개최한 제8회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가 4백7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과학상자조립부문에서 기상원(경기남한중학교2)군 등 7명, 모형공작기공작부문에서는 유정재(대구북현중학교3)군 등 6명, 전자과학실험부문에서는 박재현(서울고명국민학교4)군이 각각 수상했다.

## CFC 代替냉장고 개발

### 三星電子, HFC사용 效率개선

三星電子(대표 姜普求)가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을 냉매로 사용하면서 에너지효율도 높은 새로운 대체냉매냉장고를 개발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2백80 l 급 대체냉매냉장고는 CFC(염화불화탄소) 냉매를 HFC(수소불화탄소) 134a물질로 대체하고 고효율냉매압축기개발과 냉동동작시스템의 최적설계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오히려 개선한 것이다.

지금까지 HFC134a를 대체 냉매로 사용한 냉장고는 에너지효율이 10~15% 저하돼 전력소비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삼성전자는 이번의 개발로 오는 96년이후 CFC전면규제에 대응할수 있게 됐으며 국제협약에 따라 강력한 수출규제를 받게될 냉장고의 수출애로를 완전 해소했다.

### 情報通信研 설립기증

#### 現代그룹, 江原대에

現代그룹은 정보통신분야의 산학협동증진을 위해 총 30억 원을 들여 江原대학내에 정보통신연구소(가칭)를 설립키로 했다.

94년 6월 완공목표인 이 연구소는 연면적 8백40평 규모

의 지하1층·지상4층규모로 10개의 연구실과 사무실, 중형 컴퓨터가 설치되는 전산실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 초단파 전송장비 국산화

#### 三星전자... 120명 동시통신

무선통신의 핵심이 되는 초단파(마이크로웨이브) 전송장비가 국내기술진에 의해 개발

됐다.

三星전자 정보통신부문(사장 鄭溶文)은 10월8일 1백20명이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18GHz대역의 초단파 전송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초단파 전송시스템은 고정무선통신에 이용되는 장비로 중장거리나 국제통화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대도시의 빌딩간 통신망, 중소도시의 간선중계망, LAN(근거리통신망)과 WAN(원거리통신망)은 물론 기존유선통신망의 예비전송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 浦鐵 光陽4期설비 준공

浦項製鐵이 지난 68년이래 4만세기에 걸쳐 추진해온 제철소건설 대역사가 마무리됐다.

浦鐵은 10월2일 오전 전남 光陽제철소 종합운동장에서 光陽4期 설비 준공식을 겸해 지난 68년 창업이래 추진해온 제철소 건설을 마무리하는 浦鐵 大役事 종합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4기설비 확장공사에는 내자 1조3천8백49억원, 외자 7억5천1백만달러등 모두 1조9천6백86억원이 투입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盧泰愚대통령과 그레그 주한美대사 등 외교사절, 국제철강협회(FISI) 브라이언 로튼회장, 朴泰俊 浦鐵회장 등 임직원 및 지역주민

1만2천4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光陽4期 준공으로 浦項製鐵은 年産 2천1백만t의 粗鋼생산체제를 구축, 일본의 新日本製鐵, 프랑스의 유지노사실로드社에 이은 세계 제3위 철강회사의 위치를 확고히 굳혔다.

광양4기 설비가 정상가동되는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철강생산규모는 3천2백만t에 이르게 되고 철강자급도는 93%로 높아져 세계 제6위의 철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黃慶老 浦鐵부회장등 4명에게 금탑산업훈장이 수여되는 등 총78명의 건설유공자에 대한 훈장포장및 표창장이 수여됐다.



## 대한수학회

大韓數學會(회장 金宗殖)는 지난 10월 17일~18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가을연구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차기회장단이 선출되었는데 회장에 禹茂夏교수(고려대)와 부회장에 張健洙교수(연세대), 孫奎鉉교수(전남대)가 각각 선출되어 내년부터 2년의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총회에서는 학회상 시상과 일본수학회 초청 특별강연이 있었다. 학회상으로 朴在杰교수(부산대)가 학술상을, 尹玉鏡교수(서울대)가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朴在杰교수의 「의사 프로메니우스환에 대하여」에 관한 수상기념 특별강연이 있었다. 일본수학회장 초청 특별강연으로는 후지와라교수(일본 동경공업대학)의 「다차원 공간 위의 나머지 평가를 가진 Stationary phase 방법」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한편 700여명이 참가한 가을연구발표회에서는 康炫培교수(숭실대)의 「등주문제의 역사에 대하여」를 비롯 安在文교수

(건국대)의 「코시변환의 연속성에 대하여」 등 6편의 초청강연과 金道漢교수(서울대)와 1명의 「극초함수의 정의 수열의 동등성」을 비롯 禹茂夏교수(고려대)와 1명의 「CW-쌍의 G-수열과 W-호모로지」 등 95편의 분과별 연구발표가 있었다.

## 대한해부학회

大韓解剖學會(회장 金明國)는 지난 10월 9일~10일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정기총회 및 한·일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임기 1년의 새회장으로 서울대 치대의 金明國교수를 선출했다.

또한 한·일학술대회는 일본 59명을 포함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에이지 야마다교수(일본 후쿠오카대학)와 3명의 「광수용체세포막의 미세구조」에 관한 특별강연과 와카바야시교수(일본 나고야대학)의 「거대사립체 형성의 기전과 병리」를 비롯 이왕재교수(서울대)와 3명의 「임신생쥐에 있어서 면역기구의 역할: 자궁-태반 경계부에서 T세포 및 B세포의 분포변화」 및 기타무라(일본 도쿄대학)와 2명의 「하악골 내부구조에 대한 연구」 등 14편의 일반연제와 38편의 포스터가 각각 발표되었다. 한·일학술대회를 마친후 용인에 있는 민속촌을 관광하는 부대행사도 가졌다.

## 한국균학회

韓國菌學會(회장 鄭鳳九)는 지난 10월1일부터 4일까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관에서 학회 창립 20주년기념 아시아균학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회장단으로 회장에 閔泰鎭교수(동국대)를 부회장에 李敏雄교수(동국대)와 閔庚喜교수(숙명여대) 및 車東烈씨(농촌진흥청)를 각각 선출했는데 새회장단은 내년부터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또한 鄭亨植씨(일양약품)의 4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한편 학회 학술발표회를 겸한 아시아균학 심포지움에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9개국 25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Kurtzman박사(미국 농업연구국제센터장)의 「21세기에 있어서 균학이 미치는 영향」을 비롯 Jong박사(미국 국립 균류 및 식물균주 보존연구소장)의 「유전공학에 있어서 식용버섯의 위치」 등 4편의 특강과 金炳珏교수(서울대)의 「암모니아성 균류의 생태적인 특성과 생물과학적인 역할」 및 Tan교수(싱가폴 국립대학)의 「Colletotrichum종의 병원성에 관한 연구」 등 14편의 일반발표가 있었다. 국제균학회 아시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일양약품 수원공장을 견학하고 서울시내를 관광하는 일정도 가졌다.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韓國標準科學研究院(원장 朴勝德)은 지난 10월 6일에서 20일까지 대전에 위치한 동연구원 강당에서 국가표준제도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업발전에 있어 국가표준제도의 역할에 관한」 워크숍이 행사는 국가공여사업의 일환으로 83년이후 매년 개도국의 과학기술자를 초청해 실시되는데 이번에는 UN산하기관인 ESCAP(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의 지원을 받은 APMP(아시아·태평양지역 계측학프로그램/의장 朴鍾喆)의 2년마다 열리는 워크숍과 동시 개최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지원국과 ESCAP지원국, 독일연방물리기술청(PTB)지원국,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지원국 및 자비 참가를 포함해 27개국 33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金在官교수(인천대)의 「한국의 국가표준제도와 산업발전」을 비롯 게르만교수(PTB 부소장)의 「QA에 있어 측정표준의 중요성」 및 엘리오프박사(ESCAP)의 「표준화와 그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역자문 체제」 등 3편의 특별강연과 10편의 일반강연이 있었다. 또한 길이, 질량, 진동 등 9개 분야에 관한 강의 및 실험실습과 「각국의 국가표준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당면과제」에 관한 토의가 있었고, 현

대자동차와 포항제철을 방문하는 산업시찰과 경주지역 사적지를 관광하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측정표준분야의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과학기술협력에 기여함은 물론 선진 과학연구기관으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과학기술을 이전하여 세계시장의 다변화,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대외진출 및 정부의 외교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한국고생물학회

韓國古生物學會(회장 李河榮)는 지난 10월6~7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극동지역에 있어서 생층서, 생물구 및 생물사전에 대한 국제고생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8명의 학자와 국내 60여명의 학자들이 참가한 이번 심포지움은 동아시아 지역의 고생물학자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한 회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이성학교수(중국 남경 지질고생물학연구소)의 「극동지역에서의 페름기 식물지리구」를 비롯 키무라박사(일본 자연사연구소)의 「동아시아지역의 백악기 고식물과 고식물지리」 및 梁承榮교수(경북대)의 1명의 「한국의

백악기 공룡과 공룡발자국」 등 2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심포지움 종료후 3개국 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한국의류학회

韓國衣類學會(회장 林元子)는 지난 10월10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92년도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350여명이 참가한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아이커교수(미국 미네소타대학)의 「월드패션과 민족적 정체감」을 비롯 林茂山박사(코오롱 섬유연구실장)의 「의류용 신소재 개발 동향」 등 2편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피복과학계, 복식계 제1분과, 복식계 제2분과로 나뉘어 열린 일반발표에서는 최혜운씨(한양대)의 1명의 「시판 의류제품에 관련된 소비자 불만에 관한 연구-소비자 고발자료를 중심으로-」를 비롯 나순주씨(충남대)의 4명의 「거들의 구성과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및 정인희씨(서울대)의 1명의 「의복 이미지의 구성요인, 계층구조 및 평가차원에 대한 연구」 등 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분과별 발표후 분과별 용어집 초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데, 이 용어집은 의류사회학/피복재료정리/피복환경/의복구성/디자인복식사 등 5개분야로 나뉘지게 된다.

## 과학기술계뉴스

### 대한위생학회

大韓衛生學會(회장 曹允承)는 지난 10월9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국제환경보건회의-지구적·지역적 대응방안-」을 개최했다.

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WHO, UNEP 등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이번 국제환경보건회의는 국외학자 20여명과 국내관련자 230여명이 참가했다.

범지구·지역적 환경보건문제/수질관리 및 처리/환경오염 및 방지기술/환경보건/자연보호 등 5개 분과로 나뉜 이번 국제환경보건회의에서는 J. F. Bertaux씨(주한WHO대표)의 「지구환경보건 문제와 새로운 대응방안」을 비롯 조병환씨(환경처 조정평가실장)의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과 방향」 등 3편의 기초연설과 한버리씨(영국 테임즈강관리청 사업이사)의 「테임즈강 관리 및 환경개선」을 비롯 요코야마씨(일본 국립공중위생원 부원장)의 「환경성 건강영향과 그 예방대책」과 權肅杓교수(연세대)의 「음용수질 기준과 관리방안」 등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韓國에너지技術研究所(소장 吳正茂)는 지난 10월1일 서울호텔롯데데일드에서 제5회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동향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4개국 230여명이 참가한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후지교수(일본 메이지대학)의 「국내 에너지 이용 환경과 태양에너지 이용」을 비롯 허바드박사(미국 하와이자연에너지연구소)의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시장성장벽과 잠재력」 및 千院基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태양열 이용을 위한 직접 접촉식 열교환기 개발」 등 15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동력자원부가 후원한 이 국제세미나는 매년 개최된다.

### 대한법의학회

大韓法醫學會(회장 文國鎭)는 지난 10월9일~10일 양일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강당에서 제20회 전국법의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과학 감정과 검시제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법의학 감정에 관련해 姜信夢박사(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집단재해사 개인식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롯 郭精植교수(경북대)의 「돌연사 감정의 현황과 문제점」 등 8편과 검시제도와 관련해 李允聖교수(서울대)의 「Medical Examiner 제도」를 비롯 朴宜雨교수(건국대)의 「일본의 검시제도」 등 8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 한국생약학회

韓國生藥學會(회장 金泰姬)는 지난 10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운지버섯의 효능」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등 5개국 450여명의 관련인이 참가한 이번 국제심포지움에서는 金學源교수(중국 강북연구소)의 「운지에서 추출한 다당류의 만성간질환에 대한 치료와 임상연구 결과」를 비롯 가이 캐브럴교수(미국 버지니아대학)의 「천연다당류에 의한 면역기능의 유도」 및 金炳珪교수(서울대)의 「운지버섯의 항종양 성분」 등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대한기계학회

大韓機械學會(회장 朴天鄉)는 지난 10월2일 국민대학교 공학관 소강당에서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학술강연회에서는 李延煥씨(한국기계연구원)의 「냉간 단조의 연구사례」를 비롯 朴鍾樞교수(홍익대)의 「금속분말소결체의 항복함수」 등 3편의 강연과 金二坤교수(국민대)의 1명의 「Thermoforming용 장섬유 강화복합재료의 성형공정」에 관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 과학기술계뉴스

### 과총 회원단체 11월중 학술행사 일정

단 체 명	대표자	행 사 명	일 시	장 소
한국천문학회	홍 승 수	국제학술대회	11. 2-7	유성아드리아호텔
대한용접학회	엄 기 원	단기과정용 2차용접기술교육	11. 2-14	해사기술연구소
대한전자공학회	김 영 권	제2회 인공지능 신경망 및 퍼지시스템 학술대회 및 전시회	11. 5-7	한국종합전시장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신 동 소	국제학술심포지움	11. 6	한국종합전시장
대한혈액학회	지 정 목	추계학술대회	11. 6	조선비치호텔(부산)
대한환경공학회	김 동 윤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11. 6-7	경남대학교
대한금속학회	김 수 식	제6회 분말야금기술강습회	11. 6-7	서울대신소재공동연 구소
대한신경과학회	김 진 수	추계학술대회	11. 6-7	하얏트호텔
한국해양학회	허 형 택	추계학술발표회	11. 6-7	인하대학교
한국식품과학회	이 서 래	추계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움	11. 6-9	서울교육문화회관
대한기계학회	박 천 경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1. 7	건국대학교
한국통계학회	이 재 창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및 정기총회	11. 7	건국대학교
대한나학회	송 준 영	나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1. 7	영주다미안피부과의원
한국영양학회	채 범 석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1. 7	연세대학교
한국곤충학회	노 용 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대회	11. 7	서울대학교(수원)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백 용 현	추계학술대회	11. 7	명지대학교
한국열처리공학회	김 문 일	추계학술발표대회	11. 7	천안공업전문대
한국분석과학회	최 주	추계학술발표 및 정기총회	11. 7	고려대학교
한국구조공학회	강 춘 식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1.12-13	힐튼호텔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박 상 희	추계학술대회	11.13	연세대학교(원주)
대한알레르기학회	이 상 용	추계학술대회	11.13-14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대한조선학회	이 정 목	40주년 기념행사 추계학술발표회 및 정 기총회	11.13-14	한국종합전시장
한국섬유공학회	마 석 일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11.13-14	부산대학교
대한약리학회	백 영 홍	추계학술대회 및 한·일 약리학심포지 움	11.13-14	무등산온천관광호텔 (광주)
대한내분비학회	최 영 길	추계학술대회	11.14	파라다이스호텔(부산)
한국식물조직배양학회	소 응 영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11.14	원광대학교
한국항공우주학회	노 오 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11.14	건국대학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조 정 제	국제세미나	11.16-20	유성관광호텔
한국식품위생학회	신 광 순	정기총회 및 식이섭유와 건강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11.20	국립보건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이 성 열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1.20	육군사관학교
한국폐기물학회	김 수 생	추계학술대회	11.20	제주대학교

## 과학기술계뉴스

단 체 명	대표자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김 건 열	추계학술대회	11.20	쉐라톤워커히호텔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임 용 규	추계학술대회	11.20	미 정
대한금속학회	김 수 식	제6회 재료강도심포지움	11.20	서울대신소재공동연구 구소
대한금속학회	김 수 식	제련심포지움	11.20-21	순천대학교
대한면역학회	윤 택 구	추계학술대회	11.20-21	미 정
한국고무학회	백 봉 기	제2차 고무기술기초강좌	11.20-21	한국신발연구소(부산)
대한전기학회	황 영 문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1.21	성균관대학교(수원)
대한전자공학회	김 영 권	정기총회 및 추계종합학술대회	11.21	한양대학교
한국유탄학회	안 명 주	학술강연회 및 정기총회	11.25	서울대문화관
대한전자공학회	김 영 권	광파 및 양자전자공학연구회 국제학술 발표회	11.25-27	제주도
대한순환기학회	이 영 우	제36차 추계학술대회	11.26-27	신라호텔
대한화학요법학회	손 근 찬	추계학술대회(공동)	11.27	신라호텔
대한감염학회	유 지 소	추계학술대회(공동)	11.27	신라호텔
대한불임학회	채 수 응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11.27	서울교육문화회관
대한금속학회	김 수 식	열처리기술강습회	11.27	과학기술회관
대한지리학회	박 영 한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1.27-28	서울대교수회관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 원학회·한국독성학회	강 현 삼	노화인상질환 및 약물개발에 있어서 활 성산소	11.27-28	서울대문화관
한국영양식량학회	변 재 형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1.28	경성대학교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지 철 근	추계학술발표회	11.28	건축회관

### \* \* \*

## 한국고무학회

### \* \* \*

韓國고무學會(회장 白奉基)는 지난 10월14일 IRCO(국제고무회의기구)에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10월1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고무회의(IRC'92, Beijing)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고무학회 대표단으로부터 학회가 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IRCO의 회원으로 정식 가입이 결정되었음을 알려왔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로 있

는 IRCO는 1938년에 영국고무공업협회의 제창에 의해서 런던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래 매년 정회원국에서 열리고 있으며, 고무공업기술에 관한 전 세계적인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회원국간의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정회원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12개국이며, 준회원국은 인도 등 4개국이다.

한편 동학회는 지난 10월 23일 부산에 있는 (재)한국신발연구소에서 추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17

회 고무기술진보상을 순흥화학공업(주)의 李賢在씨와 趙鳳衍씨가 수상했으며, 금호이피고무(주) 南壹대표이사를 비롯 6명에게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또한 학술발표회에서는 Chamnoon Thitarn부소장(태국 천연고무연구소)의 「천연고무의 개발동향」에 관한 특별강연과 윤정식씨(한국신발연구소)의 2명의 「PD-MS 축쇄의 PCL계 Polyol을 기초로한 PU의 합성 및 특성」 등 3편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 과학기술계뉴스

### 대한한의사협회

大韓韓醫師協會(회장 安鶴洙)는 지난 10월 3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3천여명이 모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柳基遠교수(경희대)의 「21세기의 새로운 질병관과 한방임상의 현대화에 대한 제언」을 비롯 林準圭교수(경상대)의 「한방물리요법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2편의 주제발표와 權純源박사(KDI)의 「한방의료의 제도와 발전에 대한 제언」이라는 특별발표가 있었다. 또한 기획발표로 金性洙교수(경희대)의 「전국 한의과대학 물리요법과학 교과과정 및 물리치료사 현황」과 李鳴鍾교수(경희대)의 「스포츠 한의학의 연구 필요성과 발전방안」 등 3편과 일반발표로 李鍾秀교수(경희대)의 「물리치료기의 효율적인 임상응용」 등 9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 한국우주과학회

韓國宇宙科學會(회장 千文碩)는 지난 10월 2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재단 대회의실에서 92년도 가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프리만교수(호주 국립대학)의 「우리 은하수의 원반구조」를 비롯 催斗星씨(중

국 장춘인공위성관제소장)의 「동역학 방정식의 수치 해석」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또한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우주과학/항성 I/항성 II/자료처리와 기기개발 등 5부로 나눠 열린 연구발표에서는 金斗煥박사(KIST)의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기술정책에 대한 논고」 및 吳圭東(전남대)의 1명의 「식쌍성의 공전주기 변화에 관한 특성-준접촉 식쌍성을 중심으로-」 등 17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 대한산부인과학회

大韓產婦人科學會(회장 吳世良)는 지난 10월 14, 16, 17일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70차 추계산부인과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4일에는 연수강좌로 吳寶勳교수(경희대)의 「양수천자」를 비롯한 韓赫東교수(연세원주대)의 「임신의 면역학적 장애」 및 盧興奉교수(충남대)의 「유도분만과 분만촉진」 등 8편의 강좌가 있었다.

또한 16~17일에는 학술대회로 심포지움과 특강3편, 숙제보고 1편 및 일반연제 236(구연 124, 지상 112)편이 발표되었다. 심포지움에서는 유한기교수(이화여대)의 「지연임신의 역학 및 원인적 요인」을 비롯 金용봉교수(인제대)의 「지연임신의 병리생리학적 변화」 등 8편이 발표되었다.

### 한국응용곤충학회

韓國應用昆蟲學會(회장 崔鎔文)는 지난 10월 9일~10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및 추계임시총회와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영국, 필리핀, 중국 등 7개국 260여명이 참가한 이번 국제심포지움에서는 李升燦교수(전남대)의 「한국에서의 수도해충 종합관리」를 비롯 Pickett박사(영국 로댐스테스연구소)의 「IMP에 있어서 화학적 방제의 전망」과 모토야마교수(일본 치바대학)의 「살충제 저항성 해충의 방제전략」 Bowers교수(미국 아리조나대학)의 「생리 활성물질의 탐색 및 개발」 등 나라별 1편씩 발표되었다.

또한 임시총회에서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禹建錫교수에게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학술연구발표회에서는 배운환박사(서울대)의 「본논초기 해충군과 벼멸구의 밀도억제를 위한 살충제의 체계적 처리에 관한 연구 I. 본논초기 해충군과 벼멸구 밀도에 미치는 Carbofurna 토양혼화 처리의 영향」을 비롯 진병래씨(KIST 유전공학연구소)의 「흰불나방(Hythantria Cunea) 핵다각체 바이러스에 다각체 단백질 유전자를 지닌 절편의 Cloning 및 부분적 염기서열 결정」 등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